

하루를 시작하며



허경자 (주)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올해는 경자년(庚子年)이다. 다산과 풍요, 영민과 근면의 좋은 기운이 깃든 환위의 해라고 한다. 경자라는 이름 탓에 나는 해가 바뀌면서 이웃들의 격려와 놀림을 한껏 받았다. 경자년이 왔는데 경자가 못하게 무엇이냐며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 짓궂은 덕담을 건넸던 것이다. 그리 놀려도 되나고 계면적은 웃음으로 투덜거렸지만, 내 가슴엔 소소한 기대감이 생겨났다. 그들을 향한 감사의 물결이 일렁거렸다.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진지 꽤 되었다. 한동안 유례없던 건설호경기와

버팀의 내공으로

이주열풍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제주의 경우는 상황이 더 어려운 듯하다. 미분양주택 누적과 건설경기 침체는 이미 장기화의 길에 들어섰고 한동안 관망하던 갑골가격의 하락과 양식어종의 판매 부진은 제주지역 경기불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의 발생과 빠른 확산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나라마다 항공편을 줄이고 배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조기에 해결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보건방역에 이어 나라의 경제도 비상시국에 돌입했다.

관광업종이 상당한 제주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대의 복병을 만났다. 인위적으로 고통의 시한을 한정하거나 완전한 해결책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현상의 범위나 강도에 있어 과거와

는 그 농도가 확연히 달라 제주도 역시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가. 언제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직원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는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희망의 풀씨 하나가 날아들었다. 뉴스를 타고 전해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그 소식은 영화인도 아닌 내게 가문의 단비처럼 시원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는 북기는 머금은 삼월의 대지처럼 무언가가 봉글거리며 솟아났다.

봉준호 감독은 제92회 오스카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 '톱' 스타로 부각되었다. 향후 그는 어떠한 관객 수를 확보할 것이며 짐작도 못할 만큼의

수익도 올릴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경이로운 결과들보다도 나는 국가의 품격을 세우고 국민 모두의 자존감을 높여준 당대 불가사의한 경사에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오래전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박지성이, 골프의 박세리가 그려왔던 것처럼, 봉준호 감독은 우리가 부딪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일상을 찾고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데 희망의 풀씨가 되어준 것이다.

살다보면 어려운 상황도, 용이한 상황도 있다. 고통스런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절도 만난다. 그러나 연초부터 무척 어렵기만 한 한해다. 하지만 올해는 쥐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인 하얀 쥐의 해이다.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나는 이름을 빌어 경자년에 시국의 무사안녕과 이웃들의 건강함을 기원하련다. 버팀의 내공으로 이 또한 무사히 견뎌내기를.

사설

제주도정보다 중앙정치가 더 중요한가

새해 들면서 돌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단순히 도백으로서 중앙정치에 뛰어 들었다고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금같이 여겨야 할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로 서, 정치인으로서 다짐한 원 지사의 언행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정치세력이 하나로 뭉쳐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전진당 등이 합당 방식으로 창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원 내에 진출시킬 수 있는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4·15총선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당선 후 취임사에서 중앙정치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도 "중앙정치 진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원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한 것입니다.

원 지사의 행보가 우려되는 것은 제주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뜰이나 경기침체에 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제주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경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2공항 갈등을 비롯해 합당 방식으로 창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원 내에 진출시킬 수 있는만큼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4·15총선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특

후 추진토록 행사지침을 변경하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달 중 도주민 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와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정례회의가 다시 추진되는가 하면 오는 4·6월 전도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제주워킹 그랑프리대회 등을 열기로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또 잠정 운영 중단상태인 노인교실, 노인대학, 경로식당 등 492개 노인시설 정상화와 무료급식 재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제주' 마케팅 더 강화해야

제주도의 '코로나 19' 여파 최소화 위한 '감염병 청정 제주' 마케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 0명'인 상황을 살려 '감염병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코로나 19 청정제주' 마케팅은 관광 시장 조기 회복과 사전 완벽 방역을 전제로 한 각종 행사의 순차적 개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는 관광시장 회복방안으로 유명 인물투어 초청, '감염병 청정 제주' 투어, 도외지역 공항·지하철 영화관 등 70여개소에 '당신에겐 제주이야기 이미지' 홍보에 나섭니다. 제주관광 온라인 할인 이벤트, 도와 관광공사, 관광협회 SNS 공식채널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입소문 마케팅), 주요 포털사이트 광고, 항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 프로모션에도 나섭니다. 당초 연기되거나 개최 불투명 이던 각종 스포츠행사 등도 사전 충분한 방역조치와 대응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행사지침을 변경하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달 중 도주민 자치위원회협의회 정기총회와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정례회의가 다시 추진되는가 하면 오는 4·6월 전도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제주워킹 그랑프리대회 등을 열기로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또 잠정 운영 중단상태인 노인교실, 노인대학, 경로식당 등 492개 노인시설 정상화와 무료급식 재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민경제 소비진작대책인 음식점, 전통시장, 소매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회식이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주기 확대 등으로 서민들에게 작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코로나 19 청정제주'를 활용한 마케팅이 경제현장에 조기 접목되도록 보다 강하게 추진될길 기대합니다.

뉴스-in

"제주 문제 소홀히 하는 상황 없길"

원 지사, 동문시장 방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지 하루 만에 '서민 행복'에 나서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

원 지사는 18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동문시장을 방문해 떡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장보기 활동'을 진행.

일각에서는 "분홍색 접미만 안 입었지 선거 후보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과 똑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 중앙정계에 밀려 제주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상황은 없길 바란다"고 일침.

행복나눔 씬터 확대 운영

○...서귀포보건소가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행복나눔 씬터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 운영키로해 눈길. 씬터에서는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오

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각 3시간 동안 공예·음악·미술·운동·원에·회상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씬터의 운영으로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아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

제주농협 화훼농가 지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졸업식이나 행사 등의 잇단 취소로 도내 화훼농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소비 촉진에 동참.

제주농협은 분점과 지점별 자체 행사에 도내 화훼농가의 꽃을 주문해 도움을 손길을 전달.

농협 관계자는 "도내 화훼농가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하나로마트를 통해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 제주농협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소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마당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려면



홍익준 제주 수필아카데미 회원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남은 인생을 값어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젖을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영광의 인생과 실패의 인생으로 결정될 것이고, 내가 부모님 은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꽃길만 걸어야 할 것인가', '가시밭길만 걸어야 할 것인가' 하는 판가름이 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몇 년 전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좋아 보

아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루 쓸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란다.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간절한 목표는 반드시 이뤄진다.

근면과 정직은 성공의 어머니이고, 자조와 인내는 승리의 아버지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한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 일명일생이다. 하늘이 준 이 고귀하고 소중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과 영광과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항상 자조의 정신과 높은 뜻을 가지고 분투노력의 씩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자조처럼 기묘한 것이 없다. 누구나 근면과 노력으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행복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부상우(주)시스네트정보 이사 아버지 제주부공 장호(향년 88세, 국가유공자, 前 법원이사관, 前 제주지방법원사무국장, 前 동초등학교총동문회 초대회장, 법부사, 동제주로터리클럽 원로회원)께서 서기 2020년 2월 18일 04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9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0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선흥리 선영

부고: 흥경범(건축사사무소 흥스 대표) 아버지 남양항공 기호(향년 78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8일 10시 1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19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0일(목요일) 오전 6시 40분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1분향실(3층) ▶장 지: 양지공원 → 금악리 선영

부고: 오만식(前 도의원) 아버지 군위오공 성홍(국가유공자·향년 95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8일 09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2월 20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2월 21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

감사의 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천통사 회주 정암당 향운 대종사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4년 2월 19일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극식품의약품안전처 SCl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A(도두일동) 1544-8236